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쟁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성경중 고린도서 앞쪽(전서)에 나온다. 아무리 훌륭하고 뜻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 관해 열려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예뻐해 주는 사랑이 없으면 시든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의미가 사라지고 약해진다 뜻이라. 사물의 곁에 드러나는 모습 보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잡아함>은 여러 짧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의 한 경전인 ‘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삼백 개 가솔의 밥을 다른 이에게 보시하고 낮과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하자, 또 다른 사람은 소꿌을 짜는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 익혔다면, 앞사람이 보시한 공덕은 뒷사람의 백배, 천배, 억만 배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쉼이나 비유로도 견주지 못할 것이다.”

애욕 즉 사랑의 번민을 떠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쉼사 목사의 아귀리에 남근을 넣을지언정 여인의 몸에 넣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개물을 만들었다는 부처님의 입에서 아저 저런 간지러운 말씀이 쏟아져 나왔을까 싶지만 가장 부처님다운 말씀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중에서



**불자 세상보기**

**법현**  
태고종 교류협력 실장

**소중한 사랑 위험한 사랑**

도 원형에 제일 가까운 <잡아함>의 말씀이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을 베풀었다고 해도 잠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을 베풀지 못하는 견줄 수 없다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인간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행위는 다른 행위들처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웃음으로, 쓰디웃음으로, 손잡음으로, 다독여 줌으로, 따뜻하게 안아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의 최고 가치는 빠른(速)과 양(量)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사랑의 행위를

왜곡시키고 있어서 큰일이다.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아무렇게나 퍼다 나르면서 수익을 얻는 이들이 그들이다. 안방극장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인터넷에서 왜곡된 사랑의 행위를 아무렇게나 왜곡시켜서 판단력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우리의 아들딸들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계입을 통해 마음 내키는 대로 찌르고, 베고, 찌어서 죽이고 상대의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성(sex)적으까지 폭행을 가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미 고등학교 담

장을 넘어 중학교 교정은 물론 초등학교 교정에 서까지 잘못된 성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원인은 교육의 본질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과도 같은 위대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서구에 토대를 둔 이들의 잘못된 교육체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고 대안도 찾아야 할 것이지만 부처님의 후예로서 고민하고 부처님께서 여러 해결책을 당시의 인도사회에 제시하셨듯이 요즘의 우리사회에 제시할 대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 적게 자극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웃으며 받아들이는 사랑의 방법을 활용해야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이들이 누구나 행복한 사랑이 될 것임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더구나 사랑은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맑은 영혼에게 주어 할 것은 사랑이지, 사랑이지. 아무리 꼭 안고 오래 곁에 두 전혀 느낄 수없는 무게를 가진 맑은 영혼 가진 이여 그 맑은 영혼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오로지 사랑으로만 대하라.

**불자의 눈**

**어린이 포교 ‘부끄러운 현실’**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준비되어야 현실이 된다. 막무가내로 손 놓고 있는데 누가 교육하여 ‘내일’을 만들어 주겠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계의 어린이 포교는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만 컸지 현실적인 준비에는 소홀한 양상이다. 내일의 희망을 심는데 소홀하다는 얘기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팀이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1717개의 사찰 가운데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은 180곳에 불과했다. 1학의 노력이 미래 불교를 얼마나 담보해 줄지, 결코 희망적이라 말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교구본사도 절반이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구 본사는 지역불교 운동의 중심이다. 때문에 포교와 복지 등 불교의 사회화 운동에 가장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곳이다. 교구본사가 어린이 포교를 실천하지 않으면 법사들에게도 어린이 법회 운영을 권유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번 설문 조사는 현재의 모자람을 들춰내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다.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이제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의 희망심기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현실을 보다 양명하게 들춰내어 보다 큰 틀 속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중장기 그림 그리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새 싹싹교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리라 믿는다. 이번 설문 조사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현실을 알았다는 것은 도약할 방향을 알았다는 뜻도 되니까.

**전통사찰 이종규제 법령 철폐 마당**

최근 서울 인근의 한 전통사찰이 경내에 한 평 규모의 안내와 기도용품 판매용 가건물을 지었다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놀란 사찰측이 해당 기관 협의하여 문제를 풀긴 했지만, 인기응변으로 문제를 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법령에 의한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 전통사찰도 경내에서 신행활동을 위한 건축의 신속은 꼭 필요는 일인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두 사찰의 얘기가 아니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국가법들이 전통사찰의 자유로운 신행 활동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전통사찰들이 그동안 가슴앓이 해 온 일들을 풀어 낼 담판 형성의 좋은 마당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통사찰에 대한 이종규제는 불법”이라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도 충분히 개진 됐다.

전통사찰은 수행과 신행의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의 자연환경과 학습환경 등을 요구받는 공공의 공간이다. 그런 공적 공간이 중첩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입법기구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7. 공공영역의 종교오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미래사회는 물질과 효용성보다 다양성, 행복 등 비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탈물질·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또 다양한 진리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시대에 여러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사회는 그 나름대로 인류문화에 기여할 자격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반갑고 일리 있는 얘기이다.

그러나 세계사상 유례없이 급성장한 기독교의 편협성과 배타성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여러 종교들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용욱은 최근 한 교회에서의 설교 중 “기독교는 질서와 배타와 반목의 좁은 패거리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랑’이란 건판을 내걸고 ‘미움’을 가르쳐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게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학연’과 ‘지연’에 의한 갈등으로 만든 우리 사회에 ‘종연(宗緣)’까지 얽혀서 특정종교 또는 그 종교인들만의 ‘끼리끼리’ 분위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면 얼마나 살기 피곤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한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종교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이 생겨 세상은 더 도운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어떤 일에서든지 종교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줬으면 하는 기대까지는 하지도 않는다. 짧은 안으로 급는다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굳이 탓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룰이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종교적 표현이나 행위는 다른 종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 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일단 밖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 존중해줄 마음자세이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불쾌할 정도의 종교적 언행과 차별을

개인적 신념이나 이익을 위해 독학지할 수 없도록 함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마저 종교로 오염시킨다면 어디 가서 숨 쉬고 살 곳이 있겠는가.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만큼은 골치아픈 종교문제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다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자 자유·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사회를 꿈꾸는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소망인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다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자 자유·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사회를 꿈꾸는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소망인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육외광고관에 설치된 특정종교 홍보문구.

**자유·평등가치 구현의 ‘기준선’ ... 편향·특혜 사라져야**

한다면 함께 사는 기본이 안 된 경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그저 한 개인의 열정적인 종교성향 정도로 인이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다수가 자주 그런다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이다.

둘째, 공공영역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공공영역은 사회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위배되는 사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공공영역에서의 종교 관련 사회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공공육 현장인 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 그리고 특정종교인들만의 선별 채용 등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실상은 어떠한지, 왜

그러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운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나 법률적 판단으로 약자를 보호해줘야 할 사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지, 종교사학은 교육기관인지 선교기관인지,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특정 종교인들이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 할 시점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정치권의 비호 아래 특정종교가 우대와 특혜를 받아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왜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편향적 발언을 일삼는지, 종교가 지나치게 권력화 된 것은 아닌지, 일부 정치사회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종교선전에 이용하려는 소위 ‘성시화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무원·교사·국가대표·방송인·연예인 등 국민의 종교적 표현의 성격과 한계는 어떠한지, 공공행사에서 특정종교 의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등 정교유착으로 인한 헌법정신의 훼손과 사회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사회구조적인 시각에서 고민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를 특정종교가 독점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만 있으면 공공장소를 종교광고판으로 도배해도 되는 것인지, 국립시설을 특정종교 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시민의 동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선·포교행위는 오염 수준이 아닌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다원종교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소한 공공영역만이라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일은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지도자들의 책임이며, 자유선진국가를 후세에 넘겨줘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영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북부 - 포천,연천,동두천,파주 일원
- 대전 : 전지역
- 충청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보령 일원
- 경남 : 마산,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목포/순천,여수/전주,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도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경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